“목숨 건 발심 수행자들 원력에 합장 예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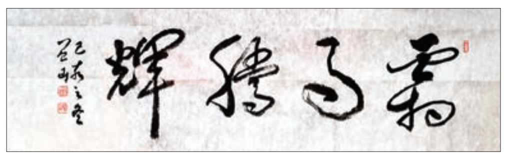
위례(霜月)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말하다 –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동안거 결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위례 상월선원 야외 천막 고행 결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월4일 봉불법회에 이어 11일 결제를 앞두고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스님이 상월선원서 정진할 대중 스님들에게 찬탄을 보냈다. 지난 1일 금강선원에서 혜거스님을 만났다.

혜거스님은 ‘상월선원((霜月禪院)’의 ‘상월’이 가진 의미부터 설명해줬다. “상월이란 이름을 들으니 육조 혜능스님 제자인 영가스님의 〈영가집〉에 ‘상송결조(霜松潔操) 수월허금(水月虛襟)’이라는 구절이 떠올랐다”며 “영가스님을 극찬하는 말로 서릿발처럼 소나무처럼 맑고 깨끗한 수행, 물에 비친 달처럼 텅 비어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칼바람을 마다않고 고행을 자처한 상월선원 역시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추운 겨울에도 서릿발 같고 소나무 같은 지조로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스님은 목숨을 내걸고라도 정진하겠다며 상월선원 결사에 동참한 대중 스님들의 발심을 높이 평가했다. “하룻밤 공부해도 억겁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스님들이 한 철 공부하는 뜻이 대단하다”며 “지금 시대 위례신도시에 상월선원이 열린 것은 새로운 불교수행의 표본을 마련하는 불사”라고 평가했다.

> “영가스님의 ‘영가집’에 나오는 ‘霜松潔操 水月虛襟’ 떠올라 이름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진해 부처님 같은 큰 지혜 얻길 기대
>
> ‘나를 버린 공부’하는 수행자들 깎아내리기보다 성취 지원해야”



지난 1일 금강선원에서 만난 선원장 혜거스님은 ‘상월’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춰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마음을 담아 ‘상월등휘(霜月騰輝)’를 직접 써줬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묵언수행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놀라워했다. “묵언은 혼자서도 어렵고, 대중이 함께 살아도 어렵기 때문”이다. “가슴 앞에 묵언이라고 목걸이를 걸고 다녀도, 어느 순간 목걸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무심결에 말을 하게 마련”이라며 “다른 것 다 내려놔도 묵언정진 하는 것 자체를 합장하고 박수치며 성취하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월선원 결사를 폄하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 “본래 공부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공부하는 사람의 발심은 격려하고 합장하고 예경해야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목숨을 거는 각오로 발심한 수행자의 원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묵언을 하며 하루 한 끼 공양을 하고, 물을 아끼고 난방을 하지 않고 옷 한 벌로만 90일을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본래자리로 돌아간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수승한 원력으로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을 헐뜯는 것은 불자의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스님은 “상월선원 대중들의 정진일과를 하루만 좇아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다”며 “하루하기도 힘든 공부를 추운 겨울 내내 감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이 뛰어나다 것”이라며 큰 원력을 일으킨 것을 축하했다.

또 상월선원 고행 결사를 계기로 치열한 수행의 풍토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님은 상월결사 소식을 듣자마자 옛 조사 스님들의 끝없는 정진을 떠올렸다고 한다. 중국 천태지의선사도 국청사를 나와 토굴서 15년간 두문불출 정진했고, 달마대사 또한 9년을 면벽 수행했다. 혜거스님은 “그 시기 조사 스님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궁금해 하는데 ‘나를 버린 공부’를 한 것”이라며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15년, 9년간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근래에 들어 정진의 맥이 끊어졌지만, 상월선원 결사가 토대가 돼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행자들이 많아져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스님은 확신했다.

결제를 앞둔 스님들에게 혜거스님은 “원력이 크면 몸에서 힘이 절로 나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월선원 대중 모두 원만하게 동안거를 회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큰 공부를 이뤄내면 그 자체가 세상을 맑게 하는 초석이 된다. 공부를 잘 마쳐 세상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교육아사리가 수행 교리체계 매뉴얼 만들자”

조계종 교육아사리회 창립 후 첫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종단과 사회 속 역할 모색할 듯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종단과 사회에 현안문제 해결에 혜안을 제시했다. 교육아사리회(회장 금강스님)는 지난 10월30일 창립 후 첫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승가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원장 진우스님도 참석했다.

교육아사리회는 지난 10월30일 창립 후 첫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열고 승가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교육아사리회 부회장 현견스님(동국대 강사)은 한국불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교육아사리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했다. 현견스님은 우선 교육아사리 역할로 한국불교 수행 및 교리체계의 매뉴얼 만들기를 꼽았다. “한국불교를 ‘통불교’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맞는 수행체계 및 이론체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스님은 “남방불교는 고승대덕이 됐든 금방 출가한 사미가 됐든 통일된 교리와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불교는 교리해석도 제각각이며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베트불교가 체계적인 불교수행법 및 교리체계를 갖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현대어로 매뉴얼에 입각한 수행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기초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스님 노릇하기에 충분한데, 우리는 기초교리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통일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기초교리를 한글화해 동일한 내용으로 승가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가연령이 높아진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켜 출가자가 수행과 포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식과 수행력을 갖춘 교육아사리 스님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아사리회장 금강스님은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승가교육에 기여해왔다”며 “8대 교육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사회현상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로 ‘발전적 한일관계에 대한 불교적 제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스님들은 이날 일본 무역제재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과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유정스님, 불학연구소장 정운스님이 각각 발표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감로수 사업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조계종 노조 책임론 불가피

조계종 감로수사업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를 내부 문제제기 없이 검찰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0월28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가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로수사업을 담당한 하이트진로음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했다. 감로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종단 외에 제3자에게 지급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트진료와 벤더업체 간 수수료 지급 계약이 조계종과 무관하고, 벤더업체에 지급된 수수료는 업체 간 일반적 유통영업 거래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로수사업 조사가 무혐의로 처분됨에 따라 종단 내부 문제제기와 시정절차 없이 사회법 제소로 이슈화시켰던 전국민주노조 조계종지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조계종단과 전 총무원장 등의 위상과 명예실추로 이어진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검찰 고발 이후 조계종지부 소속 종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계종지부는 이 역시 징계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단을 상대로 사회법 제소로 맞서고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10월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